

# 강진군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버스요금 '100원'

### 내일부터 만 6세~18세 '청소년 100원 이음버스' 운행 중고등학생 기준 매월 1인당 약 28000원 교통비 절약

강진군이 오는 2월 1일부터 '청소년 100원 이음버스' 운영을 실시한다. 청소년 100원 이음버스는 만 6세~18세 청소년들이 노선과 거리에 관계없이 강진군 농어촌버스를 1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아동과 청소년의 교통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중학생 800원, 초등생 500원의 이음요금 체계를 100원 단일요금으로 변경했다. 할인분에 대한 운수업체 손실분은 강진군에서 지급한다. 이를 위해 강진군은 지난해 12월 강진교통(유)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학교 개학 시기 등을 고려해 2월 1일부터 운영하기로 결

정했다. 강진군에 따르면 2022년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중 초중고생의 비율은 약 10%로, 100원 이음버스 운영을 통해 중고등학생 기준 매월 1인당 약 28,000원의 교통비 절약을 가져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복지 정책으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데에 제약 없이 가고자 했다"며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며,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며, 미래 세대에 희망을 심는 강진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전국 최고 규모의 양육수당 지급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진 건설을 선언한 강진군은 다양한 아동과 청소년 정책 발굴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신강진시대'를 건설한다는 전략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 장흥군, 농촌활력 위한 '농·축협장 소통 간담회'

장흥군은 지난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농업 분야 상생 발전과 현안사업 정보공유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 장흥군수와 군 농축산업분야 3개 부서의 장, 지역 농협, 축협 조합장 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우리 농업 현실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보다 잘살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행정과 농협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성 군수는 "군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농·축협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지역 농·축·임산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기초체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 진도군, 청소년 수당 매월 5만원 지급키로

### 만 13세~18세 청소년 1300여명 대상 문화적 박탈감 해소·경제적 부담 감소

진도군이 올해 하반기부터 청소년들에게 매월 5만원을 지급한다. 30일 진도군에 따르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은 만 13세~18세 청소년 1,300여명을 대상으로 월 5만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한다. 1년 기준 최대 60만원의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지급해 영화관, 공연장, 체육시설, 학원, 서점, 문구점, 안경점, 목욕탕, 이·미용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보건복지부 승인과 진도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조례 제정, 가맹점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매월 5만원씩 바우처를 제공, 청소년들이 문화·취미활동 등에 참여해 문화적 박탈감 해소를 비롯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 제도는 소득과 상관없이 이뤄지는 보편적 복지로서 그동안 선별적 복지혜택을 받던 일부 청소년들은 취약계층이라는 낙인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지원으로 미래사 산인 청소년들은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학부모들에게는 자녀 양육과 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 완도군, '관광객 천만 시대' 도약 준비 박차

### 통신사·카드사·SNS 등 빅 데이터 활용 관광 분석·활성화 방안 마련



완도군은 KT, 고려대 디지털혁신연구소 등 관산학 협력으로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맞춰 '빅 데이터 기반 관광 분석 사업'을 시행했다. 빅 데이터 분석 결과 '22년 말 기준 완도군을 방문한 관광객(외지인과 외국인 포함)은 약 568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에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했고 5월과 9, 10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21년부터 '22년까지 연속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한 이유는 쾌적하고 안전한 여행을 선호하는 트렌드와 그동안 군에서 추진해 온 해양치유 체험프

로그램 운영과 완도수목원 등 주요 관광지 인기, 접근성 개선 등이 맞물린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관광객 재방문율도 매년 증가하면서 프리미엄 관광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향후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객 비중은 MZ 세대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관광 소비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주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광 소비 규모는 2022년 약 6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1%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식음료, 쇼핑 소매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숙박과 레저, 대중교통 부문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과 관광 트렌드에 맞는 관광 소비처 발굴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완도군의 인근 도시인 목포시와 광주광역시에서 당일 여행 관광객이 많았으며, 수도권 관광객의 방문 비중은 해마다 증가했다. 군은 경기도 등 대도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축제의 경우, 장보고수산물축제는 관내 40, 50대 중장년층 소비에 의한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났고, 청산도 슬로걷기축제는 수도권 등 원거리 관광객 유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 관광 빅 데이터는 지역 축제 개선과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앞으로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기반 시설 조성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MZ 세대를 위한 숙박시설 구축,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 확대, SNS 관광 마케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제주도가 가장 가까운 항구, 완도항'과 같은 국내 유일의 관광 브랜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빅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복지, 주택,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완도 관광에 대한 진단 및 정책 방향이 나온 만큼 이를 토대로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해남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작

해남군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조기 추진한다. 군은 올해 84억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총 2,382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14명이 증가한 규모로, 지난 1월 16일부터 사업에 조기 착수해 코로나19 이후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재개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유형은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공익활동형 △참여자의 경력과 역량을 발휘하는 사회서비스형 △참여자의 욕구에 따라 사업을 세분화하여 14개읍면 및 4개 민간 수행기관에서 45개 사업단을 운영한다. 공익활동형 사업 참여자는 월 30시간 활동으로 27만원, 사회서비스형 참여자는 월 60시간 활동으로 59만원, 시장형 참여자는 최저임금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군은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 수행시 교통안전 등에 대한 참여자 안전교육을 실시해 안전하고 활기차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맹현관 해남군수는 "점차 증가하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역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